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친구라” 하신 깊은 뜻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338장 다함께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 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갑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5:13-17 다함께

¹³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¹⁴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¹⁵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¹⁶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¹⁷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친구라” 하신 깊은 뜻

2026. 8. 23. 주일예배 설교

주님이 먼저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고대 지중해의 갤리선은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였고, 노꾼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노를 저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돛단배의 선원은 달랐습니다. 항해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갤리선의 노꾼이 아니라 돛단배의 선원처럼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명령을 잘 지켜야 친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15절)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고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 주님은 우리를 먼저 친구로 택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친구에게는 당신의 속마음을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과 친구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15절).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주인이 어떤 뜻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5절)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 이상입니다. 당신의 속마음과 속뜻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속마음과 속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쩌면 쉽고 효율적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상을 주고, 하지 않으면 벌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쉽고 편한 관계를 내려 놓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주종관계에는 일과 사역은 있어도 친밀함에서 오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친구야!” 친구가 되면 달라집니다. 친구의 눈물을 알게 되고, 친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친구의 눈물이 내 가슴에 전달되어 나도 안타까워지고 그 눈물을 닦아 주고 싶어집니다. 이는 “심장과 심장이 서로 통하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과 아픔, 주님의 공훈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전해지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친구는 자기 벗의 마음을 압니다. 그가 왜 어떤 일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친구의 일을 할 때도 그가 가진 심정으로 일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마음의 사랑이 똑같이 불타오르는 제자” 좋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에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순종은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은 별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롬 8:15)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에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키는 일을 해내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친구입니다.

결론: 우리를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친구 삼고 자녀 삼아 당신의 일에 초대하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오면 순종은 애써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며, 친구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나눔

① 요한복음 15장 15-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으며,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힌트: ① 종이 아니라 00, ② 00의 00를 맺게 하기 위함)

②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으로 순종하기보다 ‘종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내 신앙생활에서 돌아보아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마음, 잘못하면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보상을 기대하며 봉사하는 태도, 의무감으로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주님의 마음보다 결과에 더 매이는 태도)

③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함께 사랑합니다. 요즘 내가 더 품고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이번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에서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외로운 이웃의 안부 묻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찾아보기,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기, 한 영혼을 정해 기도하며 만나기)

④ 그 외에 이번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와 위로, 격려와 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